

## 츠빙글리 동상에 성경과 칼... 칼뱅 紋章은 '순종하는 손'

기사입력 2017-01-10 03:10

[인물로 보는 종교개혁 500주년]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2인 - [1] 츠빙글리



스위스 종교개혁사의 첫 페이지는 칼뱅에 앞서 울트라이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사진)가 열었다. 츠빙글리의 무대는 취리히를 비롯한 스위스 내의 독일어권 지역이었다. 루터와 마찬가지로 로마가톨릭 사제였던 츠빙글리도 면죄부 판매와 교황 제도를 비판했으며 1522년 '사순절 소시지 사건'을 계기로 스위스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나서게 된다. 당시 사순절 기간에 몇몇 사람이 소시지를 먹자 가톨릭은 처벌을 주장했으나 츠빙글리는 사순절에 육식을 금하는 것은 성서에 근거가 없다고 맞선 것. 츠빙글리 역시 '오직 성서'였다. 이후 츠빙글리의 개혁은 스위스 특유의 공동체 정신과 합해지면서 '애국주의'적 요소를 띠게 됐다. 무장투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츠빙글리가 스위스 북부 독일어권을 중심으로 종교개혁 씨앗을 뿌렸다면 프랑스 출신의 칼뱅에겐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어권 서남부 지역이 무대였다. '종교개혁 사상의 완성자'라는 별칭답게 칼뱅은 선배 종교개혁가들의 업적과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종합하는 역할을 맡았다. 선배들이 비판과 투쟁을 통해 중세 가톨릭 전통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다면 칼뱅은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정치·경제·사회적인 구체적 생활 규범까지 세워 제네바를 완벽한 이상도시로 만든 건축가였다.

상징물도 대조적이다. 가톨릭과 벌인 전투에 군목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한 츠빙글리의 기념 동상은 성경과 칼을 든 모습으로 형상화됐다. 평생 예배와 강의, 상담 등 목회자로 분주히 살았던 칼뱅의 문장(紋章)은 순종을 상징하는 마음(심장)을 바치는 손 모양으로 그려졌다.

[김한수 종교전문기자 hansu@chosun.com]

## 울트라이히 쾰빙글리 [Ulrich Zwingli]

스위스(취리히)의 종교개혁자(1484-1531년). 스위스의 빌트하우스(Wildhaus)에서 행정관의 아들로 태어났다. 1500-1502년 비엔나 대학에서 고전학을, 1502년 바젤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며 인문학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 1506년 9월 사제 서품을 받고 글라루스(Glarus)에서 교황의 용병 부대 중군 신부로 일했으나 용병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고 물러났다. 하지만 용병을 생업으로 하던 주민들의 반발로 그는 1516년 아인지델른(Einsiedeln)으로 목회지를 옮겨야 했다. 그는 면죄부의 폐해와 교황청의 비리를 지적하면서 유명한 설교자로 알려져 1519년 취리히 대성당의 설교자가 되었다.

그는 성경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신자를 속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늘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특히 1522년에는 사순절 단식(Lenten fast)을 어겨 취리히 교구 감독의 경고를 받았지만 단식령이 성서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장을 거두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그는 1523년 1월 취리히 주 정부의 공개 변론에서 미사의 희생적 성격, 선행의 구속적 효과, 연옥의 실재 등을 모두 부인하고, 성직자의 결혼을 주장하여 주 정부의 승인을 얻었다.

그 해 10월에는 가톨릭교회의 성화상(聖畫像) 사용을 공격했다. 1524년 4월에는 2년간 동거하던 과부 안나 라인하르트(Anna Reinhard)와 결혼했고, 1525년 수난주간에 미사를 폐지시켰다. 또 교회 감독관할 제도를 폐지하고, 예배에서는 독일어를 사용하며 대부분의 예전과 예식도 폐지하였다.

그는 성경에 합치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시도해 나갔다. 이런 그의 개혁 조치들은 바젤과 대도시 베른, 나아가서 인근의 독일 여러 군소 도시들과 대도시 슈트라스부르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가톨릭을 고수하는 도시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따라서 그는 독일 루터파(派)와 제휴의 필요성을 느꼈다. 많은 교리에서 루터와 협력적이었으나 그는 성찬 문제에서 결정적으로 루터와 견해를 달리하였다.

1529년 10월 1일부터 11월 5일에 개최된 말부르크 회의에서 그는 14개 조항의 합의는 보았으나 성찬(聖餐)의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는 '상징설'(symbolism)을 주장함으로써 '공존설'(consubstantialism)을 주장하는 루터와 결별하게 되었다. 결국 1529년 가톨릭 연맹(Christian Union)과 쾰빙글리의 개혁에 찬동하는 신자 시민 연맹(Christian Civil Alliance)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 초기에는 다소 유리한 상태에서 6월 25일 휴전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1531년 10월 11일 카펠(Kappel)에서 대패하고 쾰빙글리 마저 47세의 나이에 전사함으로써 그의 종교개혁은 중지되고 말았다. 이후 쾰빙글리의 개혁은 불링거(Heinrich Bullinger)를 거쳐 칼빈(John Calvin)에게 와서 꽃을 피우게 되었다.

출처 : 교회용어사전 : 교파 및 역사, 2013. 9. 16., 생명의말씀사